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2월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2월 24일(월) 저녁 6시 30분
- 장 소 : 무지개회의실
- 참 석 자

박중기	이용자	이애순	윤희채	유경선	허용의	박근미	안윤환	이옥자	김영찬
		X			X	X	X	X	
신지현	김인숙	김성화	권영태	고성봉	최철중	홍현표	심상원	이인동	김유환
X	X	X			X	X			
김대영								참석자	참석률
								11명	52.4%

기록 : 장한결

<회의 순서>

1. 개회선언
2. 이사장 인사말
3. 보고: 서면 보고함 / 자활보고: 서면 보고함

4. 심의 안건

[1호 의안] 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가구원 승인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가구원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동법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이 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0년 1월에 가입된 조합원의 가구원들을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1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11명-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1/7	7214	양정순	700919-2	안성시 공도읍
2	1/7	7214	이상민	000328-3	안성시 공도읍
3	1/7	7214	이예림	021120-4	안성시 공도읍
4	1/7	7214	이정민	021120-4	안성시 공도읍
5	1/7	7215	이재혁	900606-1	안성시 죽산면
6	1/7	7215	이후영	640227-2	안성시 죽산면
7	1/15	7220	김시홍	600905-1	안성시 3동 당왕동

8	1/16	7221	정재희	550309-2	안성시 2동 아양로
9	1/9	20776	김영진	781224-1	안성시 공도읍
10	1/9	20776	김성현	091017-3	안성시 공도읍
11	1/9	20776	김서현	130716-4	안성시 공도읍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2호 의안] 『내 건물 갖기를 통한 본점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자산(별도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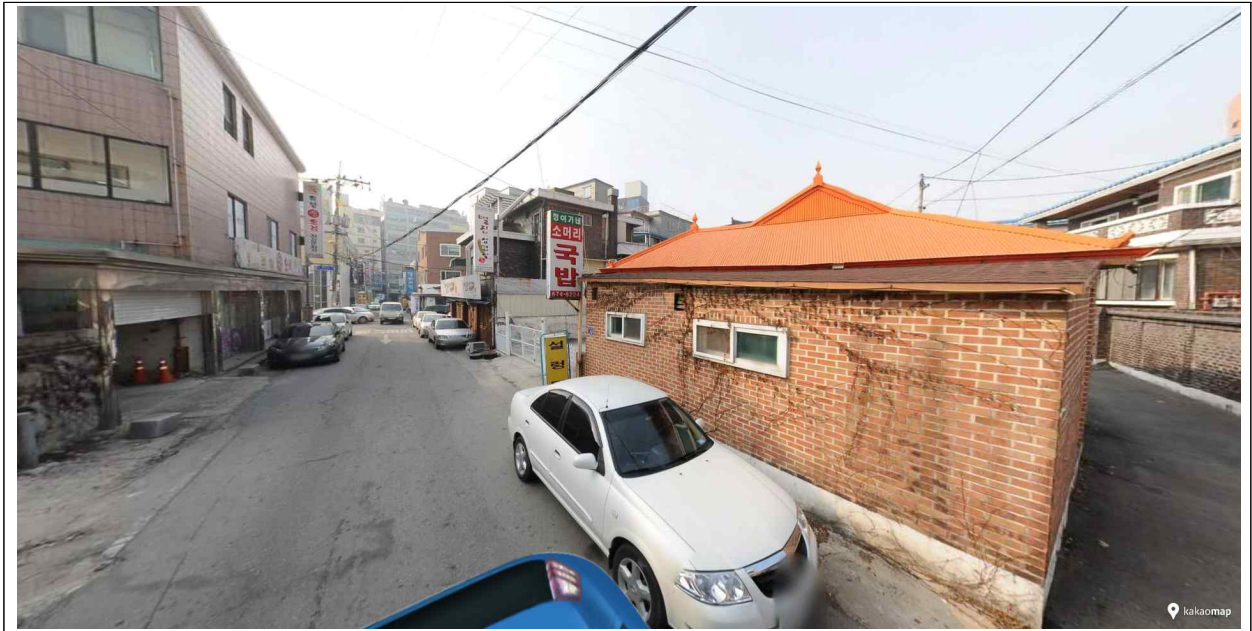
- ▶ 제안 설명 : (내건물갖기추진위원회) 『내 건물 갖기를 통한 본점이전 사업』의 추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주차장의 문제와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중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음의 주차장부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차장부지 정보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165-2 (1필지)
- ▶ 면 적 : 201.6m² (약 61평)
- ▶ 호 가 : 280,000,000원 (약 4,590,000원/평)
- ✓ 참 고 : 지하 건축비용(4~5억) 및 기계식 주차시설비용(3억)의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음.
- ▶ 전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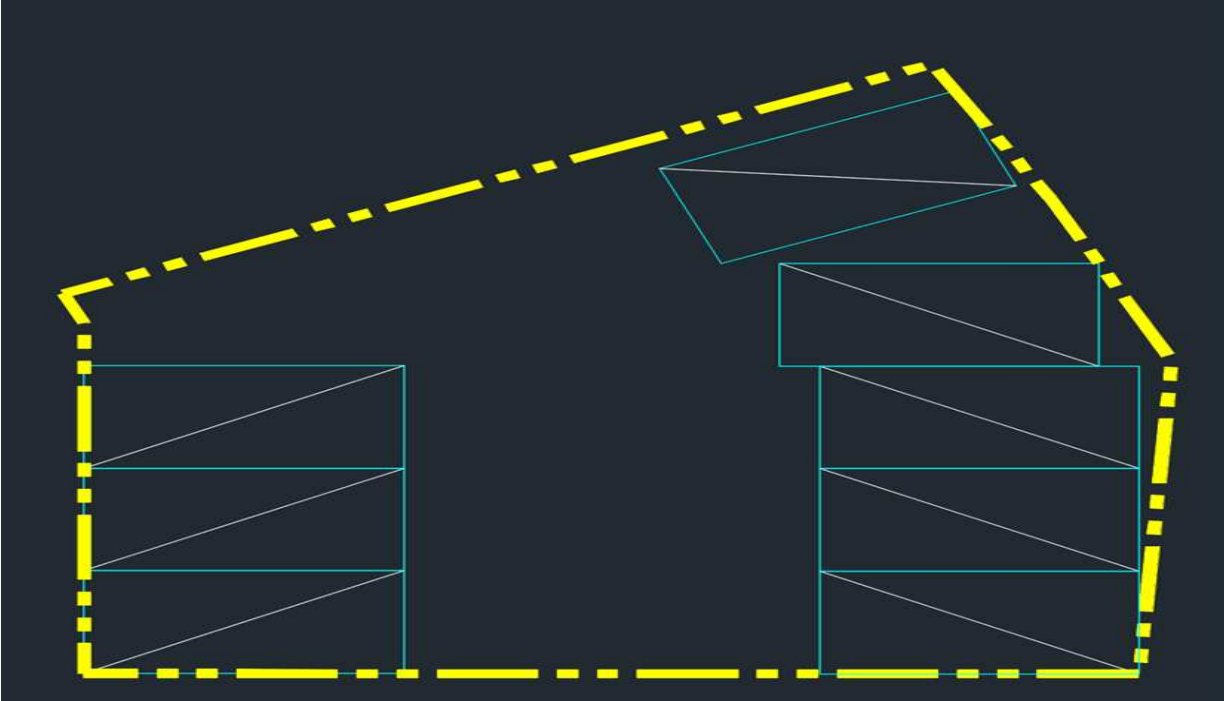




▷ 위치 :



▷ 주차도 :



[논의사항]

- 주차도라고 나와있는 것은 실제 부지 주소를 건축사에게 보내주고 건축사가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법적으로 허용되는)를 계산한 것이다.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주차대수는 8대 정도 가능하다고 건축사 쪽에서 확인해주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하를 건축하는 것과 기계식 주차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를 10m 가까이 파게되고 기계식 주차시설을 만들게 되면 7억~8억 정도 비용이 들게 된다. 주차장 부지를 따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건축사도 그렇고 내건물갓기 추진위원회 산하로 있는 가치설계 TF팀에서도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예산총회 때 내건물갓기를 위한 본점 이전 사업을 승인 받을 때 주차장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안건을 처리할 때 여유자금 3억원 정도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총회 때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축 건물에는 원래 지하주차장 설계 계획은 없는 것인가?
- 검토를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
- 신축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갖출 경우 4억~5억 정도가 더 든다는 이야기인가?
- 기계식까지 했을 때 4~5억 플러스 3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 주차장 부지가 병원 부지 매입할 때부터 얘기들이 있었다. 부동산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던 중 이 부지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평당 459만원을 맥시멈으로 갖고 거기서 조금 깎을 수 있지 않나 싶다.
-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위치이다.
- 사진에 공터로 나와있는 곳 옆에 집까지인가?

- 그렇다.
-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철거는 해야한다. 집이 크지 않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슬레이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비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용적으로도 이 부지를 사는 게 낫다. 1층에 지하주차장을 하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1층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데 부지를 사면 우리가 1층을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바닥면적이 넓어지니 층이 더 넓게 올라간다. 그런 이점이 있다.
- 본점을 건축하는데 있어 주차 공간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 한 대만 있는 것이다. 주간보호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들을 모실 수 있는 것 하나만 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 주차장이 떨어져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그것은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 실평수(공용면적 제외)가 58평 정도로 올라갈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기관 하나가 들어가기가 좁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 층에 하나를 쓰기 좋아진다.
-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주차장 부지 구입 비용을 갖고 8대를 대는 것과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 법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건폐율이 적용이 되니까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 건축 허가 조건에 들어간다.
- 단순 주차를 위한 것이라면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동의한다.
- 건축 부지와 떨어져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 200m 안에만 있으면 상관없다.
- 차량 8대를 대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건폐율이 넓어지는 것이니 찬성한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3호 의안] 2019년도 종합감사 권고의견에 따른 개선계획안 검토의 건

- ▶ 제안 설명 : (각 위원회 통합) 각 위원회별로 감사권고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별첨의 개선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 및 보완을 통해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기타사항] 내건물갯기 추진 경과보고

- 총회 이후 첫 번째 내건물갯기 추진위를 1월에 하면서 결의를 한 것이 있다. 그동안 총회 전까지 내건물갯기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통하는 작업과 계획들을 보완하고 하는 작업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만큼 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으니 실무적인 것

들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자 결의를 했다. 가장 먼저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다.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하는 일이었다. 1월 16일 내건물갯기 추진위원회와 가치설계 TF팀하고 통합으로 하면서 내건물갯기 추진위원회에서 건축사 선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건축사는 총 4개 건축사가 공모를 했었다. 삼원, 동아, 한보, 이립에이앤씨 4군데가 공모를 했다.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낸 곳은 시청 홈페이지와 우리 홈페이지, 안성시 건축사회 회원사로 있는 건축사들 전부에게 공고문을 팩스로 보냈었다. 입소문을 통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는 방법으로 공고를 한 다음 네 건축사가 공모를 하게 되었다. 네 건축사가 16일 전부다 와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설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내건물갯기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그 때 총 14~15분이 참석을 하셔서 한분 한분 전부 다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진행 한 것은 44페이지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과 설계공모 운영지침으로 법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배점 기준과 평가 항목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했다. 진행을 해보니 삼원의 경우 66점이 나오고, 동아가 69.1점, 삼보가 71점이 나왔다. 이립에이앤씨가 85.08점으로 다른 곳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게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은 것만큼 설계 견적도 가장 높게 내긴 했었다. 삼원의 경우 실제 견적을 안 넣었고, 동아는 7천 7백, 삼보가 1억, 이립이 1억 3백 40만원을 넣었다. 평가 점수도 가장 높았지만 설계 견적도 가장 높아서 설계비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최소한 8천 이하로 조정을 하면 이립에이앤씨로 하고 이립에서 조정이 안되면 그 다음 한보에 조정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곳으로 얘기를 하자고 했고 이립과 통화를 해서 8천까지 조정을 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 이후 감사님들과 계약을 하면서 감사님들이 더 깎아 8천 조금 밑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 건축사가 선정이 되었고 설계를 하는 중에 있다. 설계를 다른 곳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우 여러 조합의 가치나 이러한 것들이 구조물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 반영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용자 집단들에 대한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다. 가치설계 TF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의료기관 쪽에 여러 가지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고 조합원 대표로 조합원 분들도 참석을 하면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 건축사에게 요청하는 중에 있다. 내일 또 가치설계 TF팀이 있는데 내일도 그 작업을 할 것이고 건축하고 관련된 것은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인테리어 설계와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해야해서 구조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나 싸인물 등을 설계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될 소지가 많기에 그것도 같이 하는 게 계획되어 있다. 구조 설계하는 2/3지점 정도 되어있고 인테리어 설계도 같이 결합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다.

- 이 업체는 결정이 된 것인가?
- 결정이 되어 계약을 한 것이다.
- 향후 1-2년을 쓸 건물이 아니고 수십년을 쓸 건물인데 실력있고 퀄리티 있는 설계자의 의견이 먼저 나온 후 우리의 의견이 더해지는 게 총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단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했던 네 개의 건축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날 거라고 평가가 된 것이고 이력에서도 병원과 관련된 곳을 많이 했었다. 그 이외에도 복지시설도 많이

했었기에 우리의 가치에 맞는 건물들을 많이 했던 곳이다. 그래서 네 곳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현재 진행 중이다.

- 전체적인 일정은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3월 정도부터는 빨리 신고까지 끝나서 시공사도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 건물 계약 기간이 10월 31일까지다. 그렇기에 그에 맞춰하려고 했던 것이다.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계약 기간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 조금 여유가 생겼다. 설계를 가능하면 세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 허가를 받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번 달까지 내건물갓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총체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다음 달 내건물갓기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달 이사회에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기타안건] 안성농민의원 진료시간 조정의 건

- ▶ 제안 설명 : 김선미 원장님의 육아휴직으로 3월 한 달간 이인동 원장님이 혼자 근무를 해야 하는 바, 3월 한 달간 안성농민의원 수요일 오후 휴진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사항]

- 대진을 찾으려고 계속 공고를 내고 있었으나 구해지지 않았다. 이인동 원장님이 대학병원에 있는 후배에게 이야기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와서 일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최근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비상이라 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선미 원장님은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이인동 원장님 혼자 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는 3인 체계였고, 현재는 2인 체계인 상황에서 1인 체계 상황이기에 기존처럼 진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인동 원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대안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은 매일매일의 진료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분들이나 조합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중간에 수요일 오후 정도를 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조합원분들이나 환자분들의 불편도 최소화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었다.
-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나쁜 것은 대진을 못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자가 20~30% 정도 준 것이다. 3월까지의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고, 환자가 좀 줄어서 다행이다. 지금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 하게 되면 검진을 진행하기 힘들어진다. 외래 보기에다 바쁘다. 그렇기에 검진도 한 달 동안 거의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그래도 김선미 원장님이 2~3달정도 휴가를 내려다 상황이 좋지 않아 한달만 내기로 했고, 4월부터는 나오기로 했다. 희망적인 것은 5월부터 새로 선생님 한 분이 총원될 가능성이 90%정도 있다. 그렇게 되면 5월 지나면 많이 풀릴 것 같다. 3월 한 달 동안만 오후에 쉬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 혼자 가능하겠는가?
- 방법이 없으니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 3월 한 달간 안성농민의원 수요일 오후에 쉬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동의한다.

-내일부터 조합원들과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